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8호 【루계 제26062호】 주체107(2018)년 7월 7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해외연고자 가족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주조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6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숭고한 혁명적리념 지니시고 유가족들을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국제주의전사 아.떼.노비첸꼬가족,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서순옥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6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와 일본언론인 나리따 슈이찌가 보내여온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세계평화를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업적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지역기구가 축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축하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아랍지역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정은각하께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데 대해 축하를 드린다.

대화와 호상존중만이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종식시킬수 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계신다.

력사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쌓으신 그이의 업적을 길이 전할것이다.

조선이 평화를 위해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국제사회는 열렬히 찬양하고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

여러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각하회고 캄보쟈위원회가 6월 25일에 결성되였다.

노로돔 시하모니국왕의 지시에 따라 룡 쌈을 왕궁담당부수상이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였다.

김일성동지회고 쓰르비아전국위원회가 이날 베오그라드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국제비서 마리안 꾸비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회고 스웨데예위원회가 6월 26일 스톡홀름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웨데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떼르 룬드그렌이 선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가 같은 날 노르웨이의 프레드릭스타드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 다그 노룹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각하회고 타이위원회가 6월 27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쭝치트 플랑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산하 정당, 단체인사들로 구성된 련합회고위원회가 6월 28일에 결성되였다.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련맹과 련방공산당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 위원장인 모즈고보이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고위원회는 끼르기즈스딴공산당,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아제르바이잔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등 정당, 단체의 인사들을 망라하고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가 6월 29일 프랑스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베누아 제네테이가 선출되였다.

또한 김일성주석회고 앙골라위원회가 같은 날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앙골라녀성조직 국제비서인 국회의원 아말리아 알렉싼드르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들에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널리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회고 기네위원회가 6월 30일 꼬나크리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기네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살루브가 선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가 같은 날 로씨야련방 베넌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웨.베.이싸꼬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가 1일 도이췰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조책임자 만프레드 슈나이데르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회고모임, 사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동지회고위원회가 2일 로씨야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협회위원장 드미뜨리 베미조브가 선출되였다.

김일성동지회고 베네수엘라위원회가 같은 날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인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베네수엘라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펠릭스 헤쑤스 벨라스께스 까스띨료와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페스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들에서는 7월 8일에 즈음하여 인류자주위업실천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널리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 국제위원회가 3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미하일 빤첸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친다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압연강재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압연강재생산에서 헌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현시기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압연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과 당지도소조성원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고있다.

앙양된 대중의 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에서는 직장별생산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참모부일군들은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대오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각오밑에 생산조직과 지휘를 그 어느때보다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여러 직장들에서 압연강재생산을 위한 힘찬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강철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깊이 자각하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선행공정을 맡은 원료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강철생산에 필요한 주원료와 부원료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데 큰 힘을 넣어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초고전력전기로를 지켜선 전기로의 용해공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로의 운영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차지당 질좋은 쇠물을 뽑아내기 위해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련속조피작업반과 유압작업반을 비롯한 직장의 다른 작업반원들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강철생산에서 헌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증산투쟁의 불길은 후판직장에서도 타오르고있다.

현시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압연강재생산을 맡고있다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직장의 일군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압연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이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압연강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1내화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강철로 우리 당을 검사용위할 불타는 열의밑에 내화물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직장에서는 생산계획을 높이 세운데 맞게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내화벽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성형작업반의 로동자들은 프레스를 비롯한 설비들을 주인답게 관리하여 매일 생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원료작업반원들도 내화물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분쇄와 배합 등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있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전력증산에 계속 박차를

허천강발전소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매일 계획보다 수십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투장마다 애국열, 투쟁열, 경쟁열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생산자대중과 함께 자체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불꽃튀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발전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짧은 기간에 2대의 수차시조속기를 제작도입하여 종전보다 발전효률을 더욱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전기기계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제작공정을 단축하여 2호발전소에 효률높은 새형의 수차를 빠른 기간에 도입한데 이어 또 하나의 수차제작을 일정계획대로 다그치고있다.

특히 수십대의 변압기들을 기술개조하고 주요송전구간의 전압단계를 종전보다 3배이상으로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여러 직장들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30여대의 각종 전기절약설비들을 도입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생산현장들에서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상반년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4호발전소와 1호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낀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7월에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을 철저히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 일별계획을 1.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2호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새형의 효률높은 수차들을 받아들인데 맞게 합리적인 운전조작방법으로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전기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

대안전기공장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대안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기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공장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철야전군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전기기계들을 생산하여 중요대상들에 보내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제작기술의 최신성과에 토대하여 새형의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남포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의 심장마다에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였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이 생산돌격전의 선두에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하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수가 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긴급대책들을 세우면서 설계와 부분품가공, 조립전투와 시운전준비사업을 동시에 전격적으로 내밀어 증산의 동음이 즐기차게 울려퍼지게 하였다.

변압기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타번지였다.

전선직장, 제관직장을 비롯하여 생산의 중요공정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부분품생산과 조립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대용량변압기생산이 긴급과제로 제기되자 여러 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정신으로 한사람같이 달라붙어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으며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이고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였다.

직장들에서는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즐기차게 벌려 변압기의 함생산과 조립에서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전동기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회전선직장, 전동기조립직장, 4.27피복프레스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가공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혁명적열정과 투지를 안고 드센 공격전을 벌리였다.

전동기가공직장, 청년가공직장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부분품가공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 결과 일터마다에서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령대탄광에서

령대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킬 비상한 각오를 안고 년초부터 드세찬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탄광당조직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온 탄광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탄광참모부에서는 막장조건에 맞게 공정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를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열정을 안고 돌굴는 막장들에 나가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상반년계획수행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탄광적인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한 2갱과 3갱, 1갱, 6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2갱 채탄2중대와 5갱 채탄4중대, 3갱 채탄2중대와 채탄3중대를 비롯한 많은 채탄중대들에서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철썬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조건이 매우 불리한 속에서도 이곳 채탄중대들에서는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많은 석탄을 생산해내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년간 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한 김혁청년돌격대와 상반년 굴진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끝낸 탄광직맹돌격대, 6갱 굴진1소대, 3갱 굴진1소대의 투쟁성과는 막장들을 더욱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제골관리과의 종업원들은 자기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캐낸 석탄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공무직장과 설비보수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탄광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일군들과 탄부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증산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석탄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34)

창조와 기적의 년대를 펼치신 걸출한 령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1980년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호실에 들어섰다.

참관자들과 함께 우리가 닿은 곳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라는 글발이 부각되여있는 벽면앞이였다.

벽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불멸의 화폭을 경건히 우러르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해설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기본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였으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오늘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당면한 투쟁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강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200일전투를 벌릴것을 결정하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추억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력사적인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는 력사의 그 나날에로 이끌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일전투를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전투를 벌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야 하며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합니다. 이것은 수령님의 결심이며 나의 결심입니다.

이런 숭고한 의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맞으며 전국영웅대회를 열도록 하시고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영웅대회와 관련하여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우리가 계속 잘 투쟁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게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주체77(1988)년 9월초에 열린 력사적인 전국영웅대회는 200일전투의 자랑찬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전투에서 발휘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것을 온 나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벌린 력사적인 200일전투가 2000일전투, 2만일전투로 이어지게 하여 우리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력사적인 전투, 200일전투의 계주봉은 그대로 이어져 이 땅에서는 또다시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의 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경제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3차 7개년계획수행과정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난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부문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령도의 결과이다.

호실의 벽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전투기간 이 부문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강사의 해설을 감명깊게 들으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벽면에 이르렀다.

벽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구절구절이 참관자들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졌다.

경공업발전의 자체요구로 보나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로 보나 이제는 경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할때가 되였습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3(1984)년 8월 3일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찾으신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지 못할 그날을 되새겨보는 참관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벽면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과학, 보건,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한 영상사진문헌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강사는 여기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문제를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사는 주체72(1983)년 3월 23일 과학원(당시)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모셔진 벽면을 가리키였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원창립 30돐을 맞이한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된 벽면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충정으로 받드시여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주체화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우리 장군님.

주체74(1985)년 8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도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적으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다음벽면에는 인민보건사업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현대적인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을 빨리 일떠세우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그 모든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른 곳은 평양제1고등중학교(당시)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사진문헌이 모셔진 벽면앞이였다.

거기에는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시는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3(1984)년 7월 22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교육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신데 대하여서와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교육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신데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우리는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교육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중시하시고 교육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빛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동속에 더듬어보게 되였다.

격동적인 력사의 나날들에 추억을 얹고 열정에 넘쳐 말하는 강사와 호흡을 함께 하며 참관자들은 다음호실에 들어섰다.

호실에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칭송, 흠모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경건히 우러르면서 참관자들은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호실에는 또한 세계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격조높이 칭송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시기판을 나서는 참관자들의 가슴가슴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수령님들의 념원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울 일념으로 뜨겁게 불타올랐다.

글 본사기자 전광남
사진 본사기자 리동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학위학직수여제도를 수립하여주신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학위학직수여제도를 수립하여주신 70돐 기념보고회가 6일에 진행되였다.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룡명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동지, 국가과학원 원장 장세웅동지,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사회과학원 원장 리태정동지,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강춘금동지, 과학교육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전광호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공화국의 학위학직수여제도의 발전행로는 지식인들의 걸출한 스승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극진한 사랑과 은정속에 수놓아진 영광찬란한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적학위학직사업의 창설자,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해방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며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고무추동하기 위해 주체37(1948)년 7월 7일 학위학직수여제도를 수립하여주시였다.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존함으로 된 나라의 첫 학위학직증서를 수여해주시고 처음으로 조직된 새 조선의 학위학직수여위원회를 우리 식으로 운영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학위학직수여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국가적사업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 의하여 학위학직수여제도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국가적인 제계로 발전되였으며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학위학직수여제도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학위학직수여제도의 강화발전이 국력을 다지고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설적인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를 새로 내오도록 하시고 정연한 기구체계를 확립해주심으로써 학위학직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학위학직수여사업이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제기하고 적극 추동해나가며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나라의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 생산현장들을 찾고찾으시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연구종자와 해결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스승의 극진한 보살피심속에 나라의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국가학위학직사업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에서 학위학직사업이 큰 몫을 담당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의 사업중심도 정해주시고 학위학직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학위학직소유자들이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새로 제작한 학위학직증서와 박사휘장도안들도 몹소 보아주시고 제일 훌륭한것으로 선정해주시였으며 학위학직소유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최상급의 살림집도 안겨주시면서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였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학위학직소유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에 의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5대교양,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국보적인 도서들과 가치있는 론문들이 발표되고 새로운 발명, 발견들이 이룩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학위학직수여제도를 창설해주시고 나라의 과학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보고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위학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며 당중앙위원회 2018년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학위학직사업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을 전절히 옹호고수하며 과학으로 비약하고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당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학위학직소유자들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며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경제를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활동과 기술개건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자력자강, 자급자족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과학부문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은 주체적방법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시키며 력사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사회과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와 부문, 분과심의위원회의 일군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심의와 수여사업을 당에서 바라는대로 진행해나가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학위학직부문 일군들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운동을 심화시키며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종자를 찾아쥐고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떠밀어주어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학위학직소유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맨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국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과학자,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시대의 선구자로 한생을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앞질러 세워주신 방비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수십년전 어느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휴양소앞에 있는 저수지를 돌아보고계시였다.

뒤미처 달려온 일군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휴양소가 좋은데 자리잡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정치좋은 이곳에서 잠시나마 휴식하셨으면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처럼 가물이 계속되면 올해에 논물이 딸릴것 같아서 저수지에 물을 얼마나 잡았는가를 보려고 잠간 들렸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그제서야 그이께서 기별도 없이 외진 골안에 위치한 휴양소를 찾으신 사연을 알게 되였다.

이날 골안을 돌아보시며 휴양소와 저수지주변을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고장의 자연지리적특성으로 보아 앞으로 있을수 있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변의 산과 골짜기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산과 골짜기에 에워싸여있는 지대에서는 어지간한 비에도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사태가 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수지도 위험할뿐아니라 휴양소를 비롯한 이 골안의 자연풍치에 크게 손상을 주고 논밭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길을 잘 정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보통비에는 일없지만 갑자기 큰비가 쏟아지면 사방에서 물켜드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휴양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주변의 산과 골짜기들에 수천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수림개소에 사태막이둑을 쌓았다. 그리고 저수지로 흘러드는 물길을 정리하고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도록 개천방축공사도 하였으며 저수지둑을 튼튼히 보강하기 위한 공사도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례년에 보기드문 무더기비가 내렸다.

하지만 사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운 결과 휴양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엄혹한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아름다운 조국산천의 한부분을 끄떡없이 지켜냈던것이다.

이런 현실을 체험한 그곳 사람들은 예로부터 불란리는 《하늘의 조화》로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만년대홍수》를 이겨낸 기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기를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방비책을 세워주시였기때문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원화리가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

조국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 불멸의 자욱은 력사의 고장 원화리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석암저수지에서 멀지 않은 대동군 원화리를 찾으시여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손수 세워주시고 농업협동화의 새싹도 키워주시였습니다.》

주체41(1952)년 5월 어느날이였다.

원화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물밭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리의 농민들에게 밭갈이형편은 어떠하며 씨뿌리기는 얼마나 하였는가, 씨앗은 어떤것을 준비했는가, 부족한 로력과 축력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물으시며 농사일을 의논해주시였다.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후방에서 농사를 잘 짓는것이 전쟁승리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가를 강조해주시고 전쟁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있는 농민들과 씨뿌리는 일을 같이 하시였다.

하늘에서는 가증스러운 적기들이 돌아치고있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묻으시며 일손을 다그치시였다.

이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의 늙은이들도 농평기를 찾아들고 모두 떨쳐나와 두엄을 나르고 종자를 묻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를 잘 지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고, 식량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평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이 보잡이를 하는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 농촌에는 청장년들이 거의다 전선에 나가고 녀성들과 로인들밖에 없다고 하시며 오늘 농촌의 주인은 녀성들이며 녀성들이 일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날 녀성보잡이들도 만나보시고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도 의논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맹일군에게 풀앗이반을 무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원화리에서 소겨리반과 풀앗이반을 붓고 서로 도우면서 농사를 짓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치하해주시며 풀앗이반과 소겨리반을 무어 여러 집이 서로 힘을 합치면 일하기도 헐하고 소와 농기구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서로 힘을 합쳐 꼭 농사를 잘 짓겠다는 농민들의 결심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무연한 벌을 돌아보시면서 장차 원화리일대를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실 휘황한 전망도 펼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원화리사람들의 눈앞에는 승리한 조국땅에 펼쳐질 행복의 그날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지에 뿌리신 씨앗, 그것은 인민의 가슴속에 심으신 신념의 씨앗, 승리의 씨앗이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처럼 어려운 전화의 나날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원화리와 더불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감동깊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일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당조직정치사업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어

각지 당조직들에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앞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령도사를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유훈관철전으로 승화되게 하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을 비롯한 혁명사적교양거점들을 통한 위대성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단위별로 도혁명사적관과 왕재산혁명박물관, 경성혁명사적관을 비롯한 도안의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이 벌어지고있다.

회령시당위원회, 김책시당위원회, 온성군당위원회, 경성군당위원회, 경원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강사들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강의합평을 자주 조직하여 그들이 강의를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도록 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륙산공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불멸의 업적교양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황해북도안의 시, 군들과 련합기업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당조직들에서는 영생탑에 모신 구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에 대한 해설모임과 대중교양장소들에 게시한 위대성교양직관선전판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을 통한 해설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이런 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는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역사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더해주고있다.

황해남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집중적인 도서선전활동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모든 시, 군들에 도서해설선전대가 조직되여 맹활약을 하고있다. 여기에 망라된 출판물보급원들은 500여명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노래와 대화시 등을 배합한 도서선전을 참신하게 하여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해주시, 벽성군의 도서해설선전대원들은 영농전투장을 비롯한 대고조전역에 나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수령님》, 《수령님과 과학농사》를 통한 도서해설선전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과학농사를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도서를 가지고 도서해설선전대원들이 진행하고있는 해설은 도서내용을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함경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들과 선동원들을 내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특히 덕성군, 단천지구광업총국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단위의 선동원들이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는 노래들을 가지고 진행하고있는 노래해설선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더더욱 절감하게 하고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혁명력사도록학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평성시, 개천시, 안주시, 숙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학습을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부터 제8권까지의 내용을 묵음한 편집물을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검건자, 연고자,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을 내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체득시키기 위한 강연선전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나라일에 그치렴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주탄광(당시)의 평범한 탄부가정을 찾으시여 기름은 얼마나 공급받는가, 간장, 된장은 떨구지 않는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안주탄광혁명사적관 관장은 얼마전 도급기관 강연강사들과 도당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앞에서 강연을 진행하였다. 검건자, 연고자,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을 내세워 진행하는 강연선전은 대동군당위원회, 양덕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도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려온 검건자, 연고자, 령도업적단위 일군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그리움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벌려나가고있는 위대성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나감으로써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의지를 굳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순천시 평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순천시 평리협동농장에서 많은 면적에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을 받아들임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초급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을 때였다. 이에 대한 일군들의 견해는 각이하였다. 농장의 토양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랭해를 볼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리영규리당위원장은 생각이 깊었다.

물론 농장이 최근년간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를 놓고 과연 농장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완벽하게 관철했다고 말할수 있는가.

리당일군은 농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자자구구 새길수록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여 더 높이 비약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는 일부 일군들의 립장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리당일군은 협의회참가자들에게 이렇게 그루를 박았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데 대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완벽하게 집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는것으로 만족해있던 일부 초급일군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아박고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자!

문제를 이렇게 세운 리당위원회는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 실천과정을 통해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과학농법을 받아들이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 지름길이라는것을 새겨주도록 하였다.

여기서 리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는 기술일군들부터가 앞선 논벼재배방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준비시키는것이였다. 몸소 기술일군들로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실지 력을 본 협동농장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한것도 이런 의도에서였다. 이것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자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떨쳐나서게 하였다.

기술일군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맞게 리당위원회는 그들이 농장원들속에서 앞선 논벼재배방법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관리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들에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직관자료들이 일제히 게시되였다.

제1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이 단위에서 경험을 창조하게 한 다음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략있게 하였다.

보여주기장소를 총전처럼 농업과학기술선전실이 아니라 포전으로 정하였다.

출연자도 늘 나서던 기술일군이 아니라 제1작업반 반장 리창남동무를 내세우게 하였다. 그는 4년전부터 논벼소식균형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소식균형재배가 밀식재배에 비하여 정보당 수확고가 높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체험자를 내세워 진행한 보여주기사업의 실효는 컸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앞선 논벼재배방법이야말로 실리적이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확고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발벗고나섰다. 결과는 영농실천에서 나타났다. 현재 농장의 논벼작황은 매우 좋다.

이 나날에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자면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찾았다.

본사기자 손 영 희

당세포강화에 선차적힘을

경원종양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경원종양장에는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이듬해 7월 8일 두만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이 종양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목지를 많이 조성하고 수의방역사업을 잘하여 양마리수를 늘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종양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난 기간 종양장에서는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최근에만 해도 사상교양거점들을 개건하고 많은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일떠세웠으며 양사양관리를 개선하여 마리수를 훨씬 늘이였다. 이것은 초급당위원회가 당세포강화에 선차적힘을 넣고 수령의 유훈관철전을 힘있게 벌린것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초급당조직들은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을 초급당강화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당세포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진행하는데서 초급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는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이였다.

그것은 단위의 특성과 관련되여있었다.

종양장의 작업반들은 방목지를 중심으로 서로 수십리씩 떨어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당세포위원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것이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위원장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사업년한이 얼마 되지 않는 당세포위원장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것이다.

이를 위해 초급당위원회는 세포위원장의 날이 실속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에게 실지 도움이 될수 있는 당사업원리와 방법들을 인식시키는데 모를 박고 경험발표, 보여주기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지도를 심화시켰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들에게 당세포들을 분담하고 세포위원장사업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고정분공을 주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들이 담당한 당세포들에 자주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가 당세포사업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지향시켜 방법론있게 전개한것도 주목할만 한 점이다. 작업반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힘있게 진개한것을 실례로 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하면작업반 당세포를 본보기단위로 내세운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위원장이 대중발동의 표술과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당세포위원장은 작업반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조국의 한끝인 자기들의 일터에까지 찾아오시여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심장에 새겨안고 작업반원들은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사적건물을 알뜰히 관리하는 한편 짧은 기간에 여러 공공건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하면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모든 당세포들에서 우리 기사업을 계획적으로 완강히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더 잘 꾸리고 정양소와 유치원,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 사업도 당세포들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나날에 종양장은 화목하고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자라나고 수령의 유훈관철투쟁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험은 각급 당위원회들에서 당의 말단전투초소인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을 때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한장의 편지가 전하는 사연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얼마전 천내리세멘트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우리가 일 잘하는 공장을 소개하기 위해 왔다고 하자 공장의 한 일군은 대답대신 한통의 편지를 내놓았다.

초급당위원회앞으로 보내온 짤막한 내용의 감사편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조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건설직장의 한 로동자였다.

내용인즉 이러했다. 지난 2월 그의 남동생의 집을 수리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 남동생으로 말하면 운광직장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뜻밖의 일로 잘못된 공장의 정범한 로동자였다.

이 일을 알게 된 해당 단위 일군들은 곧 대책적의견을 토의하였다.

처음 그들은 보수식으로 간단히 땜때기를 해주려고 하였었다.

로력도 문제였지만 보다는 목재와 타일을 비롯하여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당장 보장하기 어려웠던것이다. 더우기 세멘트생산이 최대로 긴장한 때였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차례로 집수리를 멋있게 해주자고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날 저녁 아래단위 당조직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광철초급당위원장은 견해를 달리했다.

로동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일군들에게 강조하신 간곡한 당부가 아닌가. 그들의 생활상불편을 하루빨리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이렇게 되여 정범한 로동자였던 그의 가족을 위해 그가 살던 집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보수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 사업이 초급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초급당일군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 걸린 문제도 알아보고 자재를 해결해주었으며 집수리에 필요한 로력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집주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붕공사와 벽체미장, 온돌수리 등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보수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하여 짧은 기간에 살림집이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훌륭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액정텔레비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도 마련해주면서 그의 가족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생활해나가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였다.

훌륭하게 변모된 집안팎을 돌아보며 그의 일가친척들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가다듬었다.

고마운 당의 품,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이 한몸 깡그리 바쳐가리라. …

비록 글줄은 서툴고 투박해보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정범한 종업원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를 들을수 있었고 아울러 공장종업원들을 위하는 이곳 초급당일군들이 지닌 헌신적복무정신의 세계를 그대로 엿볼수 있었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공장에 꾸려진 정양소와 온정원, 합숙, 남새온실들과 버섯재배장, 주변의 살림집들, 로동자들의 밝은 모습, 그 모든것이 결코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고 공장종업원들을 위해 밤낮을 가림없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을 초급당일군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력력히 어려왔다.

바로 그런 헌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있어 공장은 더없이 비약했으리라.

올해에만도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매달 맡겨진 세멘트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훌륭히 갖추어지고 령도업적단위답게 그 면모가 나날이 일신되여가고있다.

한장의 소박한 편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였다.

뜨거운 사랑과 정이야말로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본사기자 윤 명 철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고있다.
—과일군 신대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실력이 높아야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할수 있다

3중3대혁명붉은기 선흥식료공장 부문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인민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단위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크다.

하다면 이 단위들이 인민복무전의 자욱을 힘있게 찍어가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인민복무, 이것을 실력으로 확고히 담보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과 온 사회에 실력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모든 부문에서 실력전을 벌려야 합니다.》

얼마전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한 선흥식료공장 부문당위원회 사업은 실력이 높아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정책을 뼈와 살로 새기고

몇해전 4월, 공장이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성과에 토대하여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것을 궐기하고 새로운 목표점령을 위한 전투에 떨쳐나서던 때의 일이다.

생산공정들의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앞에 우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공장의 실정에서 뭐 해낼수 있겠는가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때 리희숙지배인의 주견은 확고하였다.

공장을 몸소 찾으시여 통이 큰 전투목표를 제시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대중의 심장속에 새겨주면서 그는 당정책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가능성여부를 따져보고 집행하는것이 아니다, 죽어도 당정책의 정당성을 립증하려는 각오부터 가지고 달라붙어야 한다, 그러면 길이 반드시 열린다고 일군들의 모임에서 토로했다.

부문당위원회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뒤에서 힘껏 밀어주었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열렬한 옹호자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들을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해나갔다.

고난의 시기 600㎡밖에 안되는 건물에서 몇대의 설비로 첫걸음을 뗀 공장에서 짧은 기간에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릴수 있은것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공장으로 전변될수 있은것도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지력경쟁의 혁명정신으로 이악하게 노력한데 그 비결이 있다. 당정책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해나가자.

이런 사상공세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무인화와 관련한 정책을 비롯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겨주었다.

교양, 강연, 선동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의 모든 공정들이 여기에 지향되였으며 유훈관철을 위한 실천적인 성과들을 놓고 당의 사상과 로선을 뼈속깊이 쪼아박은 정형이 총화되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생산공정들의 무인화를 실현할 결사의 신념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머리속에 꽉 들어차게 되였다. 결과 그 가능성여부를 론하던 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개의 박사증이 전하는 기수들의 숨결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결의목표실현의 매 단계마다에서 공장의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주도세밀하게 세우는 한편 일군들이 기수적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도높이 벌리였다.

부문당위원장의 학습장에 기록된 다양하고 풍부한 기술학습내용들은 그가 실력전의 기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왔다는것을 느끼게 한다.

《PLC의 기초지식》, 《음료발전추세》, 《기능성식품원료 콩페시틴과 그 리용》, 《식품안전체계》…

지배인은 경제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탄산음료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할 때였다.

생산공정을 련속공정으로 전환하는데서 부족되는 명각능력을 다른 나라에서 설비를 들여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기술혁신조성원들은 지배인의 착상에 놀랐다.

다른 나라에서 설비를 들여오지 않고 공장에 있던 설비를 더 리용하면서 현존공정의 랭각효률을 최대로 높이게 한 그의 방안은 참으로 기발하면서도 실리적이였던것이다.

높은 실력에 의거한 지배인의 사업기풍은 무인화를 위한 기술혁신에 동원된 성원들의 창조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부원 고정훈, 연구사 리명룡, 과장 고명학, 부원 최경수동무들을 비롯한 기술혁신조성원들은 하나의 사색을 해도 공장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최대의 실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지하게 해나갔다. 그리하여 초기에 예견하였던것보다 자금을 40%나 절약하면서도 여러 생산공정들의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게 되였다.

두성희기사장은 또 어떠했던가.

언제인가 상점들을 돌아보면서 공장의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와 수요를 료해하던 때의 일이였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어느 한 종류의 사탕을 두고 왜 우리라고 그보다 좋게 만들지 못하겠는가고 생각한 그는 곧 해당 제품의 개발에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밤을 새며 기술문헌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공정확립을 위한 기술지도를 짜고들었다. 실패도 있었지만 원인을 찾고찾으며 애쓴 보람이 있어 마침내 성공의 동음이 높이 울리였다.

그것은 결의목표실현과정에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200여가지의 제품가운데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 제품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그는 식료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렇듯 부문당위원들부터가 기술혁신의 앞장에 섰다.

두개의 박사증이 전하는 기수들의 숨결.

여기에 결의목표실현과정을 통해 인민복무의 자욱을 힘있게 찍어가도록 부문당위원회가 틀어쥐고 활용한 실력전의 두번째 보술이 비껴있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요구에 맞게

궐기기간 부문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요구에 맞게 누구나 기술혁명결의목표실현에 적극 뛰여들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과학기술보급실 자료기지에 기술혁명결의목표실현에 절실한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수많이 입력하도록 한데 기초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의 리용에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발벗고나서도록 하였다.

단위별, 개인별과학기술보급실리용정형을 알아보고 통보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배움의 열풍을 드세게 일으키였다.

부문당위원회가 궐기기간 기술혁명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과 밀착시켜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더욱 심화시켜나가도록 한것은 주목되는 문제이다.

식료연구실 연구사들이 기술혁명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맹활약함으로써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거두고있던 때의 일이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그들에 대한 정치적평가와 함께 물질적평가도 더 잘해주는 방향에서 평가기준을 보다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이 본인들은 물론 모든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창조적열의를 더 한껏 불러일으켰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궐기기간 종업원들의 창조적열의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은 음료작업반 로동자 김영수동무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을 받는 속에서도 스스로 기술혁신을 찾아한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출기를 다루는 그는 탄산음료생산공정에서 병이송공정의 손로동을 없앨 방도를 피타게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끝내 병이송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개조를 기술혁신으로 성공시키였다.

부문당위원회에서는 기술혁신에서 성과를 거두는 긍정적인 소행의 주인공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도 등록하고 공장속보판에도 널리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세워주었다.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종업원들은 물론 종업원들모두가 기술혁신전투에 주인답게 떨쳐나섬으로써 결의목표실현에서 더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공장이 기술집약형, 로력절약형의 공장으로 전변되였다.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인민들에게 더 많이 안겨주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에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일군들이 유망만으로는 자기 단위를 이끌수 없다. 높은 실력이 안받침될 때만이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선흥식료공장 부문당위원회 사업이 보여주는 경험이 바로 이것이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위대성연구발표모임,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시랑송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위대성연구발표모임이 5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춘실동지,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시녀맹위원회 위원장 김인숙동지, 평천구역 록교2동 초급녀맹위원장 조혜란동지, 만경대구역 광복2동 녀맹원 원정심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만민의 심장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절세의 위인이시라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진리, 인민대중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ㄷ, ㄷ》의 강령에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새기시고 항일의 혈전만리와 건국의 초행길, 전화의 불구름과 복구건설의 생눈길을 헤치시며 조국번영의 새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국가건설의 근본문제,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조국통일의 구성, 세계정치원로이시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최상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 녀성혁명가로서의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한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시랑송모임이 5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업동지,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불패의 혁명적당과 참다운 인민의 정권, 무적의 군대를 건설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시와 노래에 담아 칭송하였다.

서사시 《이 나라 인민은 말한다!》에서 그들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애민헌신의 천만리길을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가슴뜨겁게 전하였다.

조국의 북변 두메산골로부터 서해의 작은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도록 하시려 포전길, 공장길에 아로새기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들이 구절구절에 어려있는 서사시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키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장편서사시 《태양과 오곡백과》에서 뜨겁게 분출되였다.

서사시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농촌의 천지개벽과 농업근로자들의 운명개척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변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열렬한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임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드넓은 전야마다에 황금벌의 새 력사를 펼쳐갈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반영한 녀성독창 《포전길 걸을 때면》을 비롯한 종목들도 무대에 올랐다.

시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모시는 길에 인생의 모든 영광이 있고 진정한 삶의 전부가 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영원한 《사향가》의 메아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얼마전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았던 나는 한장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서게 되였다.

뜻깊은 그 사진문헌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6월 29일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을 친히 만나 담화하시는 력사적인 화폭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인민군용사들의 위훈담도 들어주시고 그들이 전호가에서 부르던 노래도 다 들어주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해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사진문헌을 우러르는 나의 뇌리에는 력사의 그날에 울려퍼진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은은하면서도 절절한 선률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구절구절 정다운 혈육들과 정든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노래를 들으며 전화의 용사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우리 수령님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이 노래를 지으시였고 항일의 혈전만리길에서 대원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배워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만을 담은 노래가 아니다.

바로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감정속에 조국앞에 지닌 혁명가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새겨주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간직하게 하는 신념의 노래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항일혁명선렬들은 조국해방을 위한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웠다.

하기에 노래를 새기며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은 조국의 귀중함을 뼈속깊이 새기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에서 인민군용사들은 고향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리였다. 그들이 그려본 어머니의 모습은 망국노의 설움속에 고생많던 지난날의 어머니가 아니였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웃음과 락을 찾게 된 자랑스럽고 행복한 어머니였다.

전화의 그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불러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내 나라,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갈 때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철리를 밝혀준 시대의 메아리였다. 이 위대한 철리를 장장 수십성상의 혁명의 길에서 구현해오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한손을 흔드시며 열정적으로 《사향가》를 부르시지 않았던가. 천만군민은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종말》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던 1990년대 초엽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르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에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라는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응축되여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명작을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하였고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7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영원한 《사향가》의 메아리, 이것은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깃든 내 나라를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빛내여가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의 노래이리라.

본사기자 차 수

천출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어버이의 숭고한 통일념원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와 회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4돐에 즈음하여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는 7월을 맞이한 삼천리강산에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으로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거룩한 한생이였다. 그이께서는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줄기찬 령도의 나날을 이어오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여기신 주석님이시였기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밤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력사의 친필을 남기시였다.

《김 일 성
1994.7.7.》

이라는 력사적친필에는 조국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주석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애국애족의 뜻이 그대로 슴배여있다. 력사는 위인들의 생애를 무수히 전하고있지만 김일성주석님처럼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초인간적인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통일친필비를 세워 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 숭엄하게 건립된 친필비는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전하며 온 겨레를 통일성업실현에로 부르는 불멸의 기념비로 길이 빛날것이다.

절세위인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을 높이 모시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자주통일의 휘황한 진로를 펼쳐주시고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조치로 대결과 적대의 기운이 팽배하였던 이 땅에 화해와 단합의 훈풍을 안아오시였다. 특히 국무위원장님께서 확고한 통일의지와 애국의 대용단으로 두차례의 남북수뇌상봉을 진행하시고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5.26합의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며 8천만겨레는 민족의 장래운명을 틀어안고 가꾸어주실분은 오직 김정은국무위원장님뿐이심을 온넋과 페부로 절감하였다. 지금 남녘의 각계 민중은 경애하는 국무위원장님을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분》, 《민족의 영웅, 진정한 평화의 조정자》, 《2018년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통일대통령》으로 높이 칭송하며 《미국에 도래할 위대한 새시대가 보인다》, 《세계의 정상에 설 통일조국, 세계가 우러러 볼 통일민족 만세!》의 환희를 터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민족의 어버이의 숭고한 통일념원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은 세인의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는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판문점선언의 기치높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력사창조에 총매진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한평생 걸으신 포전길

가요 《포전길 걸을 때면》을 들으며

한편의 서정가요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륭성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은 모두 수령님께서 한평생 바쳐오신 로고의 결과입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포전길 걸을 때면》!

이 가요는 주체83(1994)년 9월 16일 당보에 실리여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못 잊을 그리움에 포전길 걸을 때면
가슴에 안겨오는 수령님 그 모습
봄명절 그날에도 우리를 찾아 오시어
농사이야기 나눠주시던 그 모습 그립습니다
…

피눈물의 7월 8일로부터 100일도 안되어 슬픔의 노래도, 비장한 노래도 아닌 부드럽고 유순하며 서정성이 강한 가요가 태여난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 아님수 없었다.

인민들이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고 온 나라 강산이 눈물과 비애의 바다속에 잠겨있던 때에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아있으키는 어버이의 정깊은 미소, 살뜰한 손길과도 같은 노래가 태여나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참으로 커다란 충격과 여운을 안겨주었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하많은 시어와 선률가운데서도 강렬한 서정의 분출과도 같은 이 노래로 갈수록 덧쌓여지는 그리움의 격정을 한껏 터치였던가.

…
람스런 이삭들이 고개를 숙일 때면
귀전에 울려오는 수령님 그 말씀
들판에 넘쳐나는 구수한 낟알 향기에
정생시름이 풀린다 하신 그 말씀 못 잊습니다
…

2절의 이 구절을 들으며 사람들은 누구나 생애의 마지막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찾으시였던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의 포전길을 먼저 생각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날씨가 좋은 날에 오시여도 되시련만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시고 바람부는 금당벌의 포전길을 걸으시였다.

서해의 세찬 바람이 키송을 부리면 그날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 이렇게 바람세찬 날씨에 험한 길을 걸으시면 어떻게 하시는가고 간절히 아뢰였다.

그러자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없다고,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그 어떤 험한 길도 얼마든지 걸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길은 험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시종 웃으시며 포전길을 걸으시였다. 인민들이 가슴아파할가봐 지팡이는 차안에 두시고.

어찌 금당벌의 포전길뿐이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풍찬로숙하시던 그날처럼 인민들에게 사소한 폐도 끼치지 않으시려고 점심시간이 넘지나 밖에서 식사를 하시고 황해남도의 포전길들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 세상에 한 나라의 수령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진눈까비내리는 추운 겨울날, 여름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을 걸으신 례가 또 언제 있었던가.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를 생각하면 뼈저린 자책의 눈물이 앞을 가리워 포전길에서 수령님을 만나뵈왔던 영광과 행복의 감정으로만 부를수 없는것이 이 노래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면서도 언제나 환하게 웃음지으시며 농업근로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인민의 마음속에 가득 어리여 이 가요에는 절절한 서정이 그리도 짙게 넘쳐흐르는것 아니랴.

《못다 바친 효성을 다해 그 유훈 지키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금당벌의 포전길에 남기신 절절한 유훈교시가 3절의 이 노래구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히 떠오르고 세대와 년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는 절세위인들의 눈물겨운 포전길들이 눈앞에 펼쳐지고있다.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농사를 잘해야 합니다. 동무들이 일을 잘해서 김정일동지를 험한 논두렁길을 걷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당부, 절절한 당부가 이 가요와 더불어 대를 이어가는 혁명의 길에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한품에 지니시고 오늘도 멀고 험한 포전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우리 인민은 충성의 마음안고 또다시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보답의 포전길, 애국의 포전길을 이어갈 농업근로자들의 결의가 가요 《포전길 걸을 때면》에 가슴뜨겁게 응축되여있다.

오늘도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자기 농장의 포전길들에 헌신의 땀방울을 다 바쳐가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의 그 마음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최인아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으며 총련의 새 세대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류창순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몽골방문 30돐에 즈음하여 행사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몽골을 두번째로 방문하신 30돐에 즈음하여 국방성 군관회관에서는 친선모임과 영화감상회가, 국립미술박물관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2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몽골방문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몽골 대통령대외정책고문, 국가대회의 의원들인 대외관계상, 몽골조선친선의원단 위원장과 대외관계성, 국방성, 몽골 김정일화협회,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인사들, 군중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대외관계상 드. 초그트바따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몽골방문을 수록한 영화를 감상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두차례에 걸쳐 몽골을 방문하신것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석께서는 생전에 몽골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몽골인민과 정부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한 공고한 기초를 마련해주신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여 쑤흐바따르훈장을 수여해드리였다. 오늘도 몽골인민은 김일성주석께서 오시였던 력사의 그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단 아바나 도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꾸바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5일 아바나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후안 까를로스 마르싼 아길레라 부부장을 비롯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성원들과 박창을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

10일부터 14일까지 전승컵 체육경기대회 수영 1급 남, 녀 경기가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에서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숭고한 후대사랑 길이 전하는 과외교양기지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내 조국강산에 또다시 7월이 왔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깊이 전하며 장대재언덕우에 우뚝 솟아있는 사랑의 궁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진다.

한평생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도 사랑하시며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딛고선 계단 하나에도, 령롱한 빛을 뿌리는 푸리등 하나에도 따뜻한 그 온정이 스며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다시금 숭엄히 되새겨보게 되였다.

평양의 명당자리에 아이들의 궁전을

평양학생소년궁전에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다.

궁전으로 달려오는 수많은 아이들을 마중하시듯 해빛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느라니 수십년전 우리의 귀여운 꽃봉오리들에게 새 궁전을 지어주자고 사랑의 약속을 하시던 자애로운 음성이 쟁쟁히 들려오는듯 하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문영화관에서 어린이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보아주고 계시였다.

시종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공연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이들이 뛰놀기에는 대동문영화관이 너무 좁은것 같다고 하시며 무릎우에 앉히신 어린이에게 《새 궁전이 있으면 좋겠지.》라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기쁨에 넘쳐 《예, 좋습니다. 원수님!》 하고 씩씩하게 대답을 리는 어린이를 정겹게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에는 세상에 부럼없는 아이들의 희려한 궁전에 대한 념원이 싹 치였었다.

해방후 애국적인 상공인들이 삼가 올린 전국희사금으로 평양의 명당자리로 불리운 장대재에 아이들의 궁전을 짓도록 하시고 개관을 앞두었던 궁전이 전화의 불길속에 페허가 되였을 때에는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르시여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궁전을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지어줄 구상을 펼쳐주신 그 숭고한 뜻이 더욱 빛발치고있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일 좋은 곳에 제일 크고 제일 높게 지어주자고 하시며 아이들에게 새로 지은 궁전에서 다시 만나자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궁전건설이 진행될 때에는 건설장도 찾으시여 우리가 그전에 산에서 싸울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 궁전을 세워주자고 늘 이야기해오지 않았는가고, 대리석이건 금강석이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축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말그대로 궁전을 지어주자고 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하여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연건축면적이 5만㎡에 달하는 웅장화려하고도 현대적인 건물에 각종 소조실들과 극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갖춘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기지로 일떠서게 되였다.

따사로운 해빛아래 솟아난 아이들의 궁전에는 날에날마다 사랑의 전설들이 수놓아졌다.

새해를 맞으며 궁전에 찾아오시여 아이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며 제일 선참 박수도 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천만가지 소원을 다 아뢰는 아이들의 행복은 끝이 없었다.

정녕 학생소년궁전의 불빛만 보면 힘이 난다고 하시며 온갖 온정을 다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을 못 잊어 오늘도 그리움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하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사랑의 궁전이 솟아오른 그날로부터 어언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주체52(1963)년 9월 30일, 장대재언덕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 일떠섰음을 긍지높이 선포하던 그날로부터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새겨온 력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였다.

이날 궁전의 소조실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궁전의 사명과 임무, 궁전관리운영과 소조활동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손길아래 평양학생소년궁전과 더불어 우리 학생소년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행복은 정녕 끝이 없었다.

하나를 주면 열, 백을 더 주고 싶어하는 친어버이의 심정그대로 훌륭히 꾸려진 궁전에 악기와 갖가지 기재들, 박제품들을 보내주시고 때없이 궁전을 찾으시여 선물기재들을 능숙히 다루며 희망의 나래를 펼쳐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 그 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궁전의 기본임무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수십차례나 수령님을 궁전에 모시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자라나는 학생소년들을 정보산업시대의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실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차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설비들도 보내주시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창으로 내세우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내주신 수많은 선물들에 뜨겁게 어려있다.

궁전연혁의 갈피갈피에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의 력사와 함께 그 사랑을 심장속에 새기며 자란 학생소년들의 보람의 력사가 자랑스럽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사랑이 떠받들어올린 행복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기둥감들이 자라났던가.

어제날 사랑의 궁전에서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던 수많은 소조원들이 로력영웅, 박사,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인민체육인 등으로 성장하여 보람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기였다.

오늘도 사랑의 궁전에서는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우리 학생소년들이 꿈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궁전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예술인, 체육인후비들을 키워가고있다.

개관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궁전에서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후비만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도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억만자루를 들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선견지명에 대해 더욱 뜨겁게 절감할수 있다.

하기에 학생소년들의 과외교육교양의 대전당인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본 외국의 벗들은 저마다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이 궁전을 참관하면서 우리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

《저는 조선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

오늘도 위대한 당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수많은 궁전, 회관들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잊을수 없는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해가며 높이 울려퍼지는 행복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념원하신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끝없는 찬가이다.

김 수 정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3)

천리마를 타고 세기적기적을 창조한 격동의 시대

전후 재더미우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한 전세대들의 투쟁을 돌이켜보며

70년,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더듬을 때마다 우리 인민모두가 가슴벅차게 회억하는 시대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전쟁의 후과를 가시고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 온 세상에 영웅조선의 기상을 떨친 천리마시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후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순간의 탐보와 침체도 모르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습니다.》

3년간의 전후인민경제복구사업이 기본적으로 끝난 후인 주체45(1956)년 4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제시하시였다. 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개년계획의 첫해인 주체46(1957)년 인민경제계획이 토의된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그날은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내리던 주체45(1956)년 12월 28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에게 나라안팎의 정세를 그대로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지난날 어렵게 살아왔고 지금도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남이 한발자국을 걸으면 열발자국을 걸고 남이 열발자국을 뛰면 백발자국 뛰어야 한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 나가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을 찾아주셨던 그날 밤 분괴압연직장(당시) 휴게실에서는 1만의 강재를 더 생산하기 위한 당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20명도 안되는 당원들의 얼굴은 자못 비장했다.

오늘의 시련을 뚫고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누가 돌격대로 나서야 하는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공화국의 주인으로 자라났으며 수령님을 따라 존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온 우리 로동계급이 아닌가.

정전직후 생산면적 1㎡당 1.8톤의 폭탄이 떨어져 형체조차 알아볼수 없는 제강소를 복구하여 전후 40일만에 쇠물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던 나날을 더듬으며 분괴압연직장의 당원들은 앞을 다투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러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우리 어찌 한시인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원구실은 고사하고 사람구실도 못하게 됩니다.》

《어느놈이 감히 우리 당정책을 헐뜯으려 한단 말인가? 1만의 강재를 더 뽑는것이 수령을 보위하는 일로 된다면 마지막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라도 1만증산과제를 기어코 해내자!》

불을 뿜는듯 한 당원들의 심장의 웨침은 우리 혁명의 난국을 진두에서 헤쳐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강선로동계급의 신념의 목소리였다.

압연공들은 1인1전창의고안운동을 발기하고 로라의 공형을 능률적으로 개조하고 발생로가스관에 제진기를 창안도입하여 가열로의 능력을 높이였다. 강편을 자르는 절단기도 그 능력을 배로 높이였다.

1만의 강재,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다.

강선로동계급은 이런 불같은 열정과 투지로 매달 혜방전보다 평균 10배, 최고 12배이상의 강편을 밀어냈으며 마침내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냄으로써 보수주의자들이 휘두르던 《공칭능력》이라는것을 산산이 짓부셔놓았다.

강선의 진응원작업반, 오늘은 천리마운동의 불길속에 태여난 첫 천리마작업반으로 온 나라가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도 평범하고 이름없는 용해공들이였다. 용해기술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불과 몇사람뿐이였다.

《신임용해공작업반》으로 불리운 바로 그들속에서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사회주의적구호가 나오고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킨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이 지펴졌다. 자기 한교대에서만이 아니라 로전체에서 생산이 늘어나야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 부강조국건설의 강철기둥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이곳 작업반원들은 로보수를 거의나 도맡아하다싶이 하였고 다음교대를 위해서 한시간이상 쓸수 있는 원료를 확보하여 넘겨주는 새로운 기풍을 확립해나갔다. 진응원작업반원들은 어려운 작업이 남았을 때에는 그것을 말끔히 끝내고서야 다음교대에 넘겨주었고 인계할 때도 로의 상태를 그들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인간개조와 집단적혁신운동을 결합한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서 교대본위주의를 비롯한 종전의 낡은 사고방식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새로운 무정기풍과 생활방식에 자리를 내주었고 강선의 로동계급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를 짓부시며 날마다, 시간마다 새라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높이 강선이 지펴올린 대중적혁신운동의 불길은 활화산처럼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갔다.

김책제철소(당시)의 용해공들은 1년 365일을 다 돌린다고 해도 19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고 하던 보수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을 짓부시고 19만t의 공칭능력을 가진 로에서 27만t의 선철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황철의 로동계급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며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30만~40만t능력의 대형용광로를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기양과 덕천의 로동계급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분해하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도면을 한장한장 그렸고 실물과 대비해보면서 수천종에 달하는 부속품을 하나하나 깎았다.

《이제 와서는 옛말로 되였지만 그때 어버이수령님께 드린 맹세를 어길 권리가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부속품을 자꾸 풀었다조였다 하니 열손가락이 다 닳아서 조금 다쳐도 피가 비칠 지경이였지요. 그러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들을 남보다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혁명에 바치시였으며 길을 가시다가도 논밭에서 힘든 일을 하는 녀성들을 보시면 가슴아파하시는 수령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다 락으로 여겨졌고 힘든줄 모르겠더군요.》

무려 수십번의 실패를 이겨내며 하나하나의 부속품들을 완성하던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기양의 김금산로력영웅이 외우군 하였다는 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만들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악전고투하여 기양의 로동계급은 35일만에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덕천의 로동계급은 40일만에 《승리-58》형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룡성의 로동계급은 5개월 남짓한 사이에 8m타닝반과 3000t프레스를 만들어냈다.

8m타닝반제작을 시작하던 그때 기술신비주의에 물젖은 어떤 기술일군은 설계를 하자고 해도 3개월이 걸린다고 하였고 어떤 전문설계일군들은 먼곳에 있는 타닝반을 본따오려고 출장수속을 서둘렀다.

이때 평범한 로동자인 안팔균동무가 그들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곳 동무들도 천리마를 타고 달리겠는데 당신들이 그런 걸음새로 그들을 어떻게 따라잡겠소? 설계는 우리가 맡을테니 옆에서 구경이나 하시오!》

이렇게 설계도면이 나오고 1주물직장에서 주형에 쇠물을 부어넣을 때였다. 1200℃가 넘는 쇠물이 식으면서 제품에 변형이 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형공 윤준섭동무가 불길이 타오르는 주형속에 서슴없이 휘어들면서 이렇게 웨쳤다.

《천리마를 탄 사람들은 나를 따르시오!》

작업반원들이 그의 뒤를 따라 젖은 가마니를 쓰고 주형속에 뛰여들었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것, 이것은 룡성사람들의 하나같은 지향이였고 의지였다.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징과 망치, 줄칼을 들고 달려나와 정성껏 대형치차를 다듬으면서도, 무게가 120t이나 되는 부분품제작을 위해 화염과 카스속에서 용접을 다그치면서도 그리고 육중한 제품을 들어올리면 도중 쇠바줄이 끊어질 위험이 조성되자 자기의 한목숨보다 타닝반의 완성을 먼저 생각하며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밀 때에도 룡성의 로동계급은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생각하였고 받아안은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웠다.

8m타닝반, 그것은 룡성로동계급이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살라버리고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며 집단적혁신을 일으킨 천리마정신의 고귀한 산아였다.

혁명의 주인, 미래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안고 락원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천리마》호굴착기와 《락원1》호대형양수기를 제작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철도건설자들은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주-하성철길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끝냈다.

당시 《로동신문》에는 청년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 전하는 이런 글이 실렸다.

《…그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조로이 나간것이 아니라 걸음마다 부딪치는 중중첩첩한 난관을 뚫고헤치며 앞으로 나갔다.

례전대 김병훈동무는 콩크리트타입때 물이 나오 공사가 난관에 부닥치자 헌신적으로 밤을 새워가며 도랑을 쳐서 물을 뽑았었다. 이 운동은 나중에는 온 소대, 중대, 대대로 퍼져서 일대 군중운동으로 되였었다. 어찌 이뿐이랴! 유명한 장수중대이야기며 칠만산을 정복한 4, 5대대이야기며 기술자들도 머리를 흔드는 수중콩크리트타입을 전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손으로 해낸 일이며 놀라운 일은 일일이 헤아릴수도 없다. 하성에서 해주에 이르는 연연 2백리의 산하에 늘어서서 저동댁 튼튼한 모습으로 마치 불꽃이라도 튕길듯 세차게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산이라도 떠옮기고 바다라도 메워버릴듯 한 기상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영웅한 철도건설자들의 투쟁이야기로 온 나라가 법석 끓던 그무렵 수도건설자들은 7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1만 7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결의하였으며 그것은 곧 2만세대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수도건설자들과 건설사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두들 놀라운 전변들을 일으키고있는데 건설자들이 못할 일이 있겠는가, 같은 자재와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집을 지을수 없겠는가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실 때 눈앞이 환하여졌고 힘이 솟구쳤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수도의 어느 한 건설사업소 작업반장이였던 리명엽동무의 심정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무격려의 교시를 받은 그날 밤부터 설계가들속에서는 이미 80~90% 완성되였던 낡은 설계를 완전히 개작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이 벌어졌고 로동자들속에서는 한사람이 한건이상의 예비를 찾아내는 운동이 대중적으로 벌어졌다.

영웅적인 수도건설자들은 7000세대분의 자재, 자금, 로력으로 2만 839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평양속도가 창조되였으며 이때부터 평양속도는 천리마속도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불리우게 되였다.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 한해동안에 국가계획외에 1만 3000여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3~4개월동안에 1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였으며 37만여정보의 논과 밭을 수리화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을 6개월동안에 해제끼는 세기적변혁들을 련이어 이룩해나갔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당의 사상과 의지로 대중을 깨우치고 숭고한 동지애를 발휘하여 뒤떨어졌던 사람을 혁신자로, 뒤떨어졌던 작업반을 단합되고 전투력있으며 집단주의미풍이 차넘치는 작업반으로 꾸린 길확실, 리신자동무들을 비롯한 인간교양개조의 선구자들이 수없이 배출되였다.

천리마시대 의료일군들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자신들의 피와 살, 뼈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화폭들을 련이어 펼치였다.

전신3도화상으로 사경에 처한 한 소년을 자신들의 피와 살로 소생시킨 홍남의 의료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축하편지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것도 바로 이때였고 15년간이나 걷지 못하던 소녀에게 의사가 자기의 뼈를 바쳐 키어 걷게 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환자들까지도 뜨거운 정성으로 고쳐준 소행들이 날마다 발휘된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참으로 천리마시대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변들이 련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격동의 나날이였다.

그 격동적인 시대를 당시의 정론카들은 이렇게 격찬했다.

《한걸음 떼여 천리에 다달는다. 두걸음 내치면 만리도 간다. 하루 한끼번에 10년, 20년을 사는 조선, 우리의 현실은 손살같이 전진한다. 어제가 벌써 옛날이다! 영웅적인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는 번혁과 기적으로 가득차있다. 산도 뿌리째 뽑아 세찬 힘이 도도히 굽이친다. 한번 힘주어 10만산을 들어내치고 수풀도 바다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1956년 12월, 영명한 당이, 수령이 마련하고 펼쳐놓은 이 나라의 천리마시대, 슬기로운 조선의 근로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천리마운동—그것은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래치는 영웅조선의 기상이다. 이 나라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 불굴의 기백, 아름다운 리상의 발현이다. 당의 의지, 당의 숨결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졌으며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계획이였던 5개년계획은 우리 당이 안겨준 천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폭풍처내달린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하여 승리적으로 완수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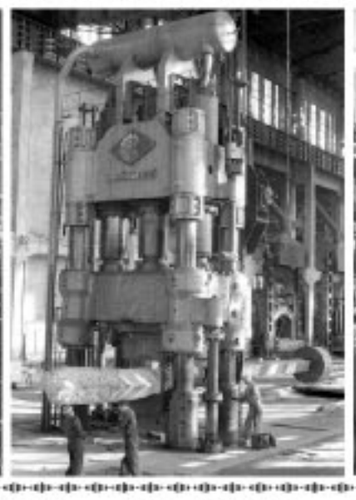
공업총생산액을 2.6배로 늘일것을 예견하였던 5개년계획의 과제는 1959년 6월말까지 2년반동안에 완수되였으며 1960년말에 이르러 113.2%로 초과수행되였다. 련이어 우리 인민은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는 천리마의 기상으로 공업화의 거창한 력사적과업을 단 14년동안에 끝내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세기를 주름잡으며 눈부신 기적을 창조한 천리마시대의 주인공들이여.

전세대들이 발휘한 그 투쟁정신, 투쟁기풍은 년대와 세기를 넘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진과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본사기자 김치곤



어버이 그 사랑을 길이 전하며 더욱더 흥하는 고장

길주군 봉암리를 찾아서

얼마전 함경북도에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도의 일군들로부터 길주군 봉암협동농장이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는 이야기를 들게 되였다. 알고보니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는 이 자랑많은 농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이 땅우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과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길주청년역에 내려서 심리가 항 가느라면 유유히 흐르는 남대천을 옆에 끼고 오붓하게 자리잡은 봉암리에 닿게 된다. 날아가던 새들이 하도 정치가 좋아 바위우에 오래도록 앉아있었다는 전설과 더불어 봉암으로 불리운 이 고장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것은 주체48(1959)년 3월 8일이였다.

아직 흰눈도 채 녹지 않은 추운 날씨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시였다고 하면서 붓잎을 그날을 더듬어보는 박동호리당위원장의 목소리는 숭엄한 감회에 젖어있었다.

리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먼저 들리신 곳은 조국을 위해 한목숨을 바친 전사자유가족들의 집이였다.

어느 한 전사자유가족의 집에 들리시여서는 가슴에 묻혀온 얼마나 탔는가, 아이들은 몇인가 하나하나 물어주시고 장독까지 열어보시면서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또 어느 전사자유가족의 집에 오시여서는 세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살고있는 녀인의 고충을 헤아리시면서 두 딸자식은 학원에 보내고 아들 하나는 데리고살라고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때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유가족의 철부지막내아들이 바로 자기였다고 하면서 박동호리당위원장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속에 흘러온 한생을 뜨거움에 젖어 돌이켜보는것이였다.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아들딸들이 그처럼 고귀한 축복을 받아안은것인가.

이윽고 관리위원회를 나서 얼마쯤 걸으니 한채의 사적건물이 눈앞에 어려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이곳 농장관리위원장 김수일동무는 근 60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당력사연구실로 불리우던 저 건물에서 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맑은 물결 출렁이는 남대천을 앞에 두고도 해마다 가물피해를 받는 리의 실태를 보고받으시고서는 저수지를 건설하고 받관수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농민들이 물온도도 재여보지 않고 모내기를 한다는것을 아시고서는 농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지을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당시 이곳에 기사, 기수가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기사, 기수들을 많이 양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축산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할데 대한 문제, 당원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봉암리가 걸어온 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꽃피우며 나날이 강화발전되여온 긍지높은 행로였다. 김수일관리위원장은 이곳 농장이 오늘 도적으로도 손꼽히는 본보기단위로 자랑떨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날에 주신 과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하나하나 어김없이 관철하여왔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남대천상류를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관수체계를 그쯘히 세워놓으니 봉암리는 수십년간 가물이란 말을 모르고 농사를 지어왔다고 한다.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을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항상 명심하고 원그루큰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 논벼긴싹모재배방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2014년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흐뭇한가. 못 잊을 력사의 그날 단 한명의 기사, 기수도 없던 봉암리에 이제는 백수십명의 기사, 기수들이 자라나 농장작업반마다 자체의 기술력량이 튼튼히 꾸려졌다고 한다. 또한 염소를 많이 길러 덕을 보는 농장에서는 매일 우유를 실은 차가 다니며 농장원세대들과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까지 염소젖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옷수리와 신발수리, 리발, 미용, 목욕 등 갖가지 봉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번듯하게 일떠선 편의봉사기지에 들려보아도 우리 수령님께서 옷수리소를 내오고 어린이들의 옷을 기워주면 녀성들의 부담을 훨씬 덜어줄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아담하고 깨끗하며 도시부럽지 않게 상품들이 가득찬 봉암상점에 가보아도 수십년전 이곳 인민들이 춥고 낡은 건물에서 상품을 사가는것을 두고 그리도 심려하시면서 빨리 상점을 새로 짓고 옮길데 대하여 당부하신 사연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점심식사시간도 미루어가시며 찾아주시였던 길주군 2중영예의 붉은기 봉암기술고급중학교에도 들려보았다. 몸소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이 학교는 2층짜리 멋쟁이교사와 체육관, 수영장 등 여러 교육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학생교육교양기지로 훌륭히 전변되여있었다. 대를 이어가며 크나큰 은덕속에 자라나는 이곳 리의 새 세대들을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보고난 우리는 리문화회관에서도 자랑넘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봉암리문화회관 관장인 리성업동무는 이곳 리기동예술선동대 대장이기도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함에 있어서 이곳 리당위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통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다고 한다.

20여년전 리당위원회에서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제선동공연을 꼴들여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그 공연활동이 농장이 오늘까지 자체로 농사를 짓는 단위로 자랑떨치는데서 출발의 계기로 되였다고 한다. 그때 경제선동공연활동이 얼마나 감화력이 컸던지 평양에까지 가서 10여차례나 공연을 하였는데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농장에서 진행하는 경제선동활동을 료해하시고 온정어린 감사와 함께 수많은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으며 농업부문 경제선동활동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다고 한다.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장에서는 오늘도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활동으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참으로 봉암리의 자랑찬 전변과 이곳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의 갈피갈피는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노래하는 가슴뜨거운 화폭이고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소리높이 노래하는 장중한 서사시와도 같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였기에 봉암리의 어제와 오늘도 좋지만 래일도 더욱 눈부시게 창창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이 영광의 땅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건

신천옷공장에서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신천옷공장의 로동계급이 상반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정체조직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맡겨진 일별, 철별, 분기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비상히 강화된 공장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의 3위1체가 생산을 직접 추동했다. 일군들인 리명숙, 림영옥, 변은희동무들은 작업반별, 기대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늘 기대공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면서 현장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특히 생산지표가 바뀔 때마다 고급기능공들과 기능이 낮은 로동자들에 대한 신축성있는 로력배치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혁신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재단작업반에서부터 일어났다. 작업반장 김영미동무를 비롯한 이곳 작업반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밑에 지표별에 따르는 재단작업을 어김없이 진행하여 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새봄제1작업반원들과 기대공들인 리수향, 안혜미, 리영춘동무들은 기대판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이악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실적이 오르는데 맞게 공장일군들은 자재보장을 적극 따라세우고 로동자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그들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이와 함께 기대판리와 제품의 질보장에서 모범적인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이곳 로동계급은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6월에는 지금껏 기록된 최고월생산실적을 돌파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얼마전 공장에서는 상반년생산총화와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이날 계기로 9월의 대축전을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생산자대중의 열의가 더욱 고조되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승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업적은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

이 땅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4돐을 맞이하고 있다.

《김 일 성
1994.7.7.》

이 아홉글자의 친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애국애족의 한생과 숭고한 조국통일유훈이 깃들어있다.

지금 온 겨레는 나라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4돐에 즈음하여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다.

해방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대결과 전쟁소동으로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였을 때 조선인민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립장과 의지를 밝히시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간섭없이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전조선적인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에 응할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북남련방제를 실시할것을 제안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0년대초 격렬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신것은 획기적사변이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는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투쟁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의 본질과 근본성격에 맞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7.4공동성명의 원칙들을 부정하고 분렬영구화를 《정책》으로 선포하는 극악무도한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남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여 분렬매국세력에게 철추를 내려치고 자주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새롭게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이날도 새벽일찌기 새날의 집무를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날까지 이틀동안 진행된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느라 피로가 겹쌓인 속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을 한장한장 세심히 검토하시고 활달한 필체로

《김 일 성
1994.7.7.》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이 친필에는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이 뜨겁게 어려있고 통일조선의 창창한 래일이 빛발치고있다.

가장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로, 통일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에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가로막아나섰다.

온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로 우러러모시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상실이였고 영원히 가실수 없는 아픔이였다.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우리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하며 분렬과 대결, 전쟁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엄혹한 난국이 조성되였던 준엄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판문점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가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화강석비돌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을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념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이 드팀없는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어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여주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한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새 천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기점인 주체89(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이다.

6.15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지향과 의지를 집대성하여 북과 남의 수뇌분들께서 처음으로 직접 서명하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서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근본리념과 근본립장, 근본방도로부터 시작하여 북남관계발전에서 나서는 현실적문제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위한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대중적운동으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전진하는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경제와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겨레의 자주통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주체96(2007)년 10월 또다시 평양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실천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10.4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공동의 기치로 계속 높이 추켜들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으로 북남선언리행이 전면차단되고 북남관계가 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북남사이의 폭넓은 협상제안을 비롯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들을 련이어 내놓도록 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하시였다.

정녕 통일에로 향한 우리 민족의 거족적통일대진군이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철한 자주통일의지와 탁월한 령도,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며 실천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겨레의 통일위업을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3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반드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3월에 단행하신 력사의 땅 판문점에 대한 현지시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민족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와 더불어 밝아온 올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정화와 통일을 위한 통이 큰 결단과 현명한 방략이 담겨져있고 한피줄을 나눈 겨레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절세위인의 신년사는 내외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계속되였던 북남사이에 판문점련락통로가 개통되고 군통신이 재개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측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한 북남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실무회담들이 진행되였으며 우리 고위급대표단과 삼지연관현악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이 남측지역에 나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따뜻한 봄기운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용지를 안으시고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시여 온 민족과 전세계에 감격과 환희의 격파가 일어번지게 하시였다.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터져올린 장엄한 신호탄인 판문점선언은 온 민족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자주통일선언,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를 밝힌 평화통일선언,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명시한 민족대단결선언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 김정은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으로 11년동안이나 멈춰섰던 통일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이 있은지 29일만인 지난 5월 26일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고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합의를 이룩하심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시였다.

참으로 몇달전만 하여도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화해와 평화에로 급전환하고 북남관계에서 꿈같은 대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비범특출한 령도와 절세의 위인적풍모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길에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가 있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족적진군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7(2018)년 7월 6일
평 양

남조선단체들

재일조선학생들에게 감행한 일본당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남측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를 비롯한 22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재일조선학생들에게 감행한 일본당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지난 6월 28일 북을 다녀간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일본에 도착하자 세관당국은 그들이 가지고간 기념품들을 비롯한 물품들을 모두 빼앗았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학생들의 가방을 마구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형들, 재일동포들이 항의를 들이댔지만 세관측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반응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정치적인 리유로 재일동포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로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록력을 가하고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재일동포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을 람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전량을 학생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발표되였다.

회견문은 일본정부가 일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등학교지원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보조금지급도 중단하도록 하였다고 까밝혔다.

그 어떤 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수 없다고 회견문은 주장하였다.

회견문은 일본정부는 과거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신문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2일 《자유한국당에 완전해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방자치제선거이후 《자유한국당》에서 계파들사이의 갈등과 내부분렬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 까밝혔다.

사설은 분단수구악폐세력으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망언과 망발로 꾸준히 제 무덤을 판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참패한것은 응당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유한국당》의 당내《혁신》이라고 하는 민중기만책은 더 큰 화를 불러올것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혁신안》을 통해 중앙의 해체와 당명개정, 인적청산 등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은 중앙조직과 비용의 축소, 계파간의 책임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력사적으로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의 기반인 《민주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 간판만 바꾸는 기만적인 《혁신》과 《청산》을 거듭해왔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반민주수구악폐, 반통일분단악폐이며 악폐중의 악폐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중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자유한국당》이 당을 완전해체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다면 궤멸적인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갈수록 드러나는 역적패거리의 부정부패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홍준표역적패거리가 저지른 부정부패행위가 새로 드러나 민심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6월 28일 남조선 《CBS》방송은 역도가 경상남도지사를 해먹을 당시 그자의 졸개들이 맡은 산하기업 및 기관 등에서 사람들을 비법적으로 채용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2013년 경상남도산하 기업인 경남개발공사에 8명이 채용되였는데 여기에는 홍준표를 뒤받침하였던자와 그의 자녀, 전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등이 포함되여있었다고 한다.

이자들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방식이 바뀌고 경력과 자격증 등 채용에 필요한 조건도 무시되였다고 한다.

2014년에도 이 기업에 3명의 기간제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였는데 이자들은 모두 당시 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 또는 친구의 자녀들로서 사전에 필기시험답안을 알고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였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사회계에서는 홍준표패거리의 죄행을 철저히 조사할데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호소

이란제1부대통령이 6월 28일 정부관리들과의 담화석상에서 미국의 압력책동에 맞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의 계속되는 대이란제재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선포한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대응책을 취하는것이 정부앞에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국내정치조직들이 단결을 이룩한다면 이란은 능히 미국의 압력에 대처해나갈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할것을 강조

부룬디대통령 뻬에르 은쿠룬지자가 1일 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서한에서 전체 인민이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부룬디의 독립은 결코 식민주의자들이 선사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싸운 선렬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10개년전략계획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단합하여 열심히 일하고 애국주의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생활환경개선사업

중국의 수리부가 최근 올해 하반년에 진행할 환경보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강과 호수주변들에서 오물처리사업과 비법적인 모래채취, 물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된다고 한다.

한편 중국의 섬서성에서 최근 황하를 비롯한 강하천주변 농촌들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0개의 현과 구, 997개의 향과 진, 5 200여개의 농촌지역들에 수많은 생활오수처리시설들을 새로 건설하고 오수처리사업을 진행하고있다. 2일 섬서성환경보호청이 밝혔다.

고속철길 부설

인도네시아에서 고속철길부설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길이가 142.3km에 달하는 이 철길로는 시속 350km로 렬차가 달릴수 있다.

수도 자까르따와 서부자바주의 반둥시를 련결하는 고속철길이 개통되면 3시간나마 걸리던 렬차의 주행시간을 약 40분으로 단축할수 있다고 한다.

지하철도건설 추진

아랍추장국련방의 두바이에서 6월 30일 지하철도차굴공사가 완공되였다.

길이가 3.2km에 달하는 이 차굴은 땅속 12-36m깊이에 위치하고있다.

앞으로 철길부설공사를 다그쳐 2020년 2월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규소공장 조업

몽골에서 첫 규소공장이 건설되여 조업하였다.

동부고비도에 위치한 이 공장에서는 매달 200~400t의 규소를 생산하게 된다.

공장에서는 앞으로 생산능력을 더욱 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2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액화천연가스 공장건설 계획

탄자니아수상이 6월 29일 액화천연가스공장을 건설할데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남부지역에 2 070여ha의 부지면적을 가진 공장이 건설된다.

공장이 건설되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고 한다.

다리건설 계획

칠레정부가 6월 29일 칠로에섬과 본토를 련결하는 다리를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길이가 2.7km인 다리는 2023년에 완공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다리가 건설되면 섬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지게 된다.

수산물수출 증가

이란에서 올해 3월에 끝난 지난 이란년도에 수산물수출량이 13만 7 000여t으로서 그전 이란년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6월 30일 이 나라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이 전하였다.

살림집문제해결노력

케니아에서 최근 부족되는 살림집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주택개발기금을 새로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2022년까지 50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한다.

6월 30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나무심기

피지정부가 최근 비티레부섬에 있는 산림보호구에서 나무심기계획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보호구에서 열대성태풍과 산불에 의해 파괴된 7 000ha의 산림을 복구하고 산림면적을 늘이기 위한 나무심기가 진행된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고유한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있게 된다고 한다.

어린이설사증예방사업

우간다정부가 최근 어린이설사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편접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6월 26일부터 전국의 갓난애기들이 설사증백편을 접종받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1만명이상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설사증으로 목숨을 잃고있다.

소아마비예방접종

아프가니스탄에서 2일 소아마비예방접종이 시작되였다.

5일동안 진행되는 접종기간에 27개 주의 어린이들이 백편을 접종받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얼마전 헬만드주에서 소아마비환자가 또 발생하여 전국적인 환자수가 9명으로 늘어난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06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